<h1>나 혼자만 레벨업-81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mac329d524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1화</p>  
<p>똑똑.</p>  
<p>"부탁하신 파일입니다."</p>  
<p>"들어오게."</p>  
<p>우진철은 협회장실로 들어갔다.</p>  
<p>고건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환한 얼굴로 우진철을 맞이했다. 우진철이 건넨 서류철을 펼치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진우였다.</p>  
<p>증명사진 속의 진우는 앳된 모습이어서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지만, 그래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.</p>  
<p>"흐음."</p>  
<p>활동 내역을 읽어 내려가는 고건희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졌다.</p>  
<p>'E급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면서 4년이나 헌터로 활동을?'</p>  
<p>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.</p>  
<p>아무리 협회가 담당하는 게이트들이 길드나 개인이 가져가는 게이트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E급에게는 숨이 막혀 오는 레벨일 터!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진우는 헌터로 활동했던 경력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.</p>  
<p>"이렇게 부상이 잦았는데도 용케 버텼군."</p>  
<p>"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 협회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"</p>  
<p>"...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군."</p>  
<p>고건희의 눈에 이채가 감돌았다.</p>  
<p>'실종된 아버지를 대신해 아픈 어머니와 학생인 동생을 혼자 보살피고 있다라...'</p>  
<p>성진우가 재각성자라는 소리를 듣고서 반쯤은 흥미 삼아 그의 파일을 열어 보았는데 이게 웬걸.</p>  
<p>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내였다.</p>  
<p>'길드에 넘겨주기에는 참 아까운 헌터인데.'</p>  
<p>자료를 보다 보니 진우를 협회로 끌어들이지 못한 것이 더욱더 아쉬워지는 고건희였다.</p>  
<p>쩝.</p>  
<p>입맛을 다시며 다음 장을 넘기는데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다.</p>  
<p>고건희는 흡족한 얼굴로 서류철을 덮었다.</p>  
<p>"잘 됐네."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서류철을 돌려받은 우진철이 돌아서 나가려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.</p>  
<p>"저기... 협회장님."</p>  
<p>"음?"</p>  
<p>고건희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우진철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.</p>  
<p>'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우 과장이 저런 얼굴을 다 하고...'</p>  
<p>말하기 어려운 얘기라도 있는 것일까?</p>  
<p>고건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.</p>  
<p>"무슨 일인가?"</p>  
<p>망설이던 우진철이 대답했다.</p>  
<p>"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... 실은 방금 전 말씀드린 성진우 헌터가 레이드 팀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."</p>  
<p>"벌써? 그래, 어느 팀인가?"</p>  
<p>"헌터스 길드의 레이드 팀입니다."</p>  
<p>"흐음... 헌터스라."</p>  
<p>성진우가 헌터를 선택했다.</p>  
<p>그것도 하루 만에.</p>  
<p>고건희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'설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사실은 헌터스가 제안한 거액의 계약금이 탐나서?'</p>  
<p>그렇다면 실망스런 일이었다.</p>  
<p>정말 오랜만에 헌터다운 헌터를 만났다고 감격하고 있었으니까.</p>  
<p>하지만 어제의 태도나 그간의 자료를 토대로 생각했을 때, 진우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.</p>  
<p>이를테면.</p>  
<p>"확실히 강한 마수들과 싸우고 싶다면 헌터스가 가장 적격이긴 하지."</p>  
<p>고건희는 그리 납득하려고 했다.</p>  
<p>그러나 우진철이 빠르게 태클을 걸어왔다.</p>  
<p>"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협회장님."</p>  
<p>"뭔가 들은 게 좀 있나?"</p>  
<p>"확인된 바에 의하면... 성진우 헌터는 공격대가 아니라 채굴팀으로 들어갔습니다."</p>  
<p>고건희가 벌떡 일어났다.</p>  
<p>"뭐? S급 헌터가 광부로 지원했다고?"</p>  
<p>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다.</p>  
<p>사실은 우진철도 그랬다.</p>  
<p>그래서 몇 번을 거듭해 확인해 봤는데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.</p>  
<p>'이래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건데...'</p>  
<p>대체 성인우는 무슨 생각인 걸까?</p>  
<p>우진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.</p>  
<p>"그렇다고 합니다."</p>  
<p>고건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허허 하고 실소를 터트렸다.</p>  
<p>"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내로구만."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지급받은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배윤석 팀장의 뒤를 따라갔다.</p>  
<p>게이트 근처에 안전모를 쓴 헌터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.</p>  
<p>대략 20명 정도?</p>  
<p>모두의 시선이 배 팀장에게로 모였다.</p>  
<p>배 팀장은 진우를 소개했다.</p>  
<p>"여기는 오늘 같이 일하게 된 성씨."</p>  
<p>"안녕하세요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들어 올리며 채굴팀 멤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다들 반응이 시큰둥했다.</p>  
<p>이해는 갔다.</p>  
<p>'하긴.'</p>  
<p>이쪽은 내일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용직이고, 저쪽은 길드와의 정식 계약을 통해 채굴팀으로 고용된 헌터들.</p>  
<p>채굴팀 입장에선 친절하게 대해줄 이유가 없었다.</p>  
<p>"아이참. 사람들하고는... 그래도 같이 일할 동료가 왔는데."</p>  
<p>배 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맨 끝에서 있는 인상 험악한 남자를 가리켰다.</p>  
<p>"성 씨는 저기 목 씨 옆에 딱 붙어 다니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고 그래. 목 씨가 말수가 적어서 그렇지 여기선 제일 베테랑이야."</p>  
<p>"...알겠습니다."</p>  
<p>진우는 군말 없이 목 씨라는 남자 옆으로 가서 섰다.</p>  
<p>목 씨는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들릴 듯 말 듯 흘러가는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목진수요."</p>  
<p>"성진우라고 합니다."</p>  
<p>소개는 그걸로 끝.</p>  
<p>어느새 목진수의 시선은 팀장에게로 옮겨 가 있었다.</p>  
<p>'참 친절들 하시군.'</p>  
<p>진우도 시선을 돌렸다.</p>  
<p>팀장은 좀 떨어진 곳에서 길드 직원으로 보이는 일반인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</p>  
<p>조금 집중하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.</p>  
<p>"...공략팀은 아직이야? 아까 다 끝났다더니 지금이 몇 분째야?"</p>  
<p>"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답니다. 이게 다 팀장님과 팀원들 안전을 위해서니까 안에 마수들 전부 정리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"</p>  
<p>"그 말만 벌써 세 번 들었어."</p>  
<p>"에이, 팀장님. 대충대충 정리했다가 작업 중에 숨어 있던 마수라도 튀어나오면 다들 곤란해지시는 거 잘 아시잖습니까?"</p>  
<p>아들뻘 되는 남직원이 눈웃음을 지으며 애교를 부리자, 배 팀장도 차마 화를 내지는 못하겠는지 고개를 돌리며 피식 웃었다.</p>  
<p>"알았다, 알았어."</p>  
<p>"엇? 팀장님, 이제 화 좀 풀리셨습니까?"</p>  
<p>"알겠으니까. 가 봐."</p>  
<p>"옙. 제가 공략팀 나오면 숨도 안 쉬고 이리로 바로 튀어 오겠습니다. 참, 그리고 오늘 작업 끝나고 다 같이 한잔, 아시죠?"</p>  
<p>"아이고. 알겠으니까, 고만 가 보라고, 이 친구야."</p>  
<p>다행히 별 마찰 없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.</p>  
<p>직원의 대처가 좋았다.</p>  
<p>'남들은 대형 길드 다닌다면 어디서건 다 큰 소리치고 다니는 줄 알지만...'</p>  
<p>길드 사무직들은 일반인들이고, 현장에서 뛰는 헌터들은 각성자들이다.</p>  
<p>각성자들이 해 줘야 할 일은 많은데 각성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다.</p>  
<p>각성자들을 공장의 기계 부품 갈아 끼우듯 마음대로 뽑았다 잘랐다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소리. 그러니 직원들이 헌터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.</p>  
<p>남들 눈에는 출세한 걸로 비치는 대형 길드 직원들에게도 그들만의 남모를 속사정이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...음?'</p>  
<p>팀장과 직원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있던 진우에게 문득 옆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.</p>  
<p>"얘기 들었어? 오늘 온 신참 E급이라던데?"</p>  
<p>'또 내 얘긴가.'</p>  
<p>진우는 가끔 뛰어난 청력이 원망스러웠다.</p>  
<p>'그렇다고 아예 귀를 막고 지낼 수도 없고...'</p>  
<p>씁쓸히 웃고 있는 사이 헌터들의 조심스런 담화는 계속됐다.</p>  
<p>"뭐? E급?"</p>  
<p>"E급을 뽑아 왔다고?"</p>  
<p>"그렇다니까."</p>  
<p>뒤통수에 날아와 꽂히는 따끔따끔한 시선들이 느껴졌다.</p>  
<p>"아니, 팀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E급을 뽑았대?"</p>  
<p>"E급이 힘이나 제대로 쓰겠어?"</p>  
<p>"그러게 말이야."</p>  
<p>"오늘 작업,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."</p>  
<p>여기저기서 나오는 걱정스런 목소리들.</p>  
<p>그래도 나름대로의 배려인지 최대한 소리들을 낮추고 있기는 한데, 그런 수고도 진우에게는 무의미했다.</p>  
<p>진우는 실소를 삼켰다.</p>  
<p>'시선이 곱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네.'</p>  
<p>역시 E급은 어딜 가나 찬밥 신세였다.</p>  
<p>워낙 익숙한 일이라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.</p>  
<p>'어차피 오래 볼 사이도 아니니까.'</p>  
<p>그런데 그때였다.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갑자기 게이트 정면 쪽이 시끄러워졌다.</p>  
<p>"공략팀 나왔구먼."</p>  
<p>"드디어 끝났나 보네."</p>  
<p>기다림에 지쳐 있던 채굴팀 헌터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.</p>  
<p>상황을 지켜보던 배 팀장이 헌터들에게 손짓했다.</p>  
<p>"자자, 이동합시다."</p>  
<p>채굴팀 헌터들은 각자 장비를 챙겨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. 진우도 헌터들 틈에 섞여 따라갔다.</p>  
<p>"수고하셨습니다."</p>  
<p>"수고하셨어요."</p>  
<p>"다들 수고하셨습니다!"</p>  
<p>게이트 앞에서는 헌터스 길드의 직원들이 막 레이드를 끝내고 게이트에서 빠져나오는 공격대 멤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다.</p>  
<p>현장에서 쓰이는 공략팀이란 말은 아마도 공격대 멤버들을 뜻하는 듯했다.</p>  
<p>'이들이... 국내 최고의 공격대.'</p>  
<p>상급, 아니 최상급 헌터들의 면면을 훑어보는 진우의 눈매가 예리해졌다.</p>  
<p>그중엔 그가 아는 얼굴도 있었다.</p>  
<p>'...최종인.'</p>  
<p>헌터스의 대표이자, 마법 계열 S급 헌터.</p>  
<p>괜히 최종인이 자신을 알아보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진우는 안전모를 깊이 눌러썼다.</p>  
<p>다행히 주변에는 비슷한 복장의 헌터들이 많았다. 진우는 자연스럽게 배경에 녹아들 수 있었다.</p>  
<p>그렇게 던전 광부들 옆에 조용히 서서 국내 최정예 공격대 멤버들을 지켜보는 진우의 심정은.</p>  
<p>'...이게 진짜 헌터스의 정예들이라고?'</p>  
<p>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.</p>  
<p>생각보다 강한 기운을 가진 헌터를 찾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최종인은 최종병기라는 별명에 부끄럽지 않게 엄청난 마력이 느껴졌지만, 그 외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다.</p>  
<p>'저들이 약한 걸까?'</p>  
<p>말도 안 되는 소리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국내 최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길드에서도 정예들을 고르고 골라 만든 1군 멤버들이다.</p>  
<p>'마스터가 레이드에 참가하는데 멤버를 허술하게 구성하지는 않았겠지.'</p>  
<p>약하다는 말은 저들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였다.</p>  
<p>그렇다면 결론은 하나.</p>  
<p>'내가 강해진 거다.'</p>  
<p>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강함은 상대적인 것.</p>  
<p>몇 달 간의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았다.</p>  
<p>방금 A급 던전을 공략하고 나온 공격대가 약해 보일 정도로 능력치가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.</p>  
<p>상대와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강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.</p>  
<p>두근, 두근, 두근.</p>  
<p>그건 가슴이 뛰는 일이었다.</p>  
<p>그런데 그 순간.</p>  
<p>아무도 시키지 않았고, 어떤 소리도 없었는데, 진우의 고개가 자연스럽게 게이트 쪽으로 돌아갔다.</p>  
<p>그러고는 감탄을 터트렸다.</p>  
<p>'이럴 수가...'</p>  
<p>게이트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고 있는 짧은 머리의 여성.</p>  
<p>전혀 꾸미지 않은 민낯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크고 맑은 두 눈이었다. 새하얀 피부나 뚜렷한 이목구비도 눈길을 끌었다.</p>  
<p>남자가 100명 있다면 99명 정도는 주저하지 않고 예쁘다고 칭찬할 만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다.</p>  
<p>그러나 무엇보다 진우의 시선을 잡아 끈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이었다.</p>  
<p>그녀의 안에 있는 힘.</p>  
<p>무표정한 얼굴의 여자 헌터에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막대한 양의 마력이었다.</p>  
<p>'적어도 최종인과 동급.'</p>  
<p>어쩌면 그 이상.</p>  
<p>주변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가진 여자였다.</p>  
<p>놀라움이 진정되고 이성이 감정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했을 때, 진우는 여자의 이름을 떠올렸다.</p>  
<p>'저 여자가 바로...'</p>  
<p>국내 유일한 여성 S급 차해인.</p>  
<p>최종인과 함께 헌터스의 한축을 맡고 있는 최상위급 헌터였다.</p>  
<p>'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.'</p>  
<p>이만한 기운을 가진 여자가 한국에 몇이나 될까?</p>  
<p>그런 희귀성에 비해 차해인의 얼굴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.</p>  
<p>그녀 스스로 방송에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리는 까닭이었다. 그래서 진우도 오늘 처음 차해인의 얼굴을 봤다.</p>  
<p>'소문처럼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카메라를 싫어하는 거지?'</p>  
<p>20대 초반의 여성 거의 대부분이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즐기는데 말이다.</p>  
<p>물론 휴대폰 쪽 얘기지만.</p>  
<p>시선이 좀 노골적이었는지 차해인의 눈길이 진우가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.</p>  
<p>'은신... 까지는 필요 없겠지?'</p>  
<p>진우는 가볍게 기척을 숨겼고, 진우가 있던 곳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차해인은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'뭐지? 방금 강한 기운이 느껴졌는데?'</p>  
<p>착각이었을까?</p>  
<p>처음엔 고건희 협회장이 현장에 들른 줄 알았다.</p>  
<p>그런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기운이 사라져 있었다.</p>  
<p>'협회장님같이 바쁘신 분이 예고도 없이 방문을 하실 리가 없지.'</p>  
<p>착각의 대가는 컸다.</p>  
<p>강한 기운의 흔적을 쫓느라 잠깐 감각을 곤두세웠던 탓에 악취가 평소보다 몇 배나 지독하게 코를 찔러 왔다.</p>  
<p>'윽.'</p>  
<p>차해인은 늘 하던 대로 손수건을 꺼내 코를 틀어막고는 비틀비틀 헌터들 틈을 빠져나갔다.</p>  
<p>'생각보다 감각이 좋은 여자네.'</p>  
<p>진우는 차해인이 멀어지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이로써 공략팀 전부가 게이트를 빠져나왔다.</p>  
<p>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채굴팀의 팀장 배윤석이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. 양손으로 짝 소리 나게 박수를 친 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자, 이제 우리 차례니까 다들 잘해 봅시다!"</p>  
<p>작업 특성상 수거팀이 먼저 게이트로 들어간 후 채굴팀이 뒤를 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게이트 앞에서 멈춰 섰다.</p>  
<p>'...'</p>  
<p>그렇게 가만히 서서 처음 보는 A급 게이트의 위용을 말없이 감상하고 있을 때, 배윤석이 다가왔다.</p>  
<p>"성 씨, 뭐 해? 우리도 들어가야지."</p>  
<p>"예."</p>  
<p>짧게 대답한 진우가 다른 헌터들과 마찬가지로 게이트 안에 발을 내딛었다.</p>  
<p>그러자 곧 익숙한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[던전에 입장하였습니다.]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